



홀로스 공동체

의식확장과 힐링, 새로운 사회의 연구 및 발전을 통한 물질과 의식의 통합

- 발행 월인 • 편집 허유, 초현, 쎬이, 선호, 연우
- 주소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68 헤남빌딩 4층
- 전화 02-747-2261 • 이메일 cpo@herenow.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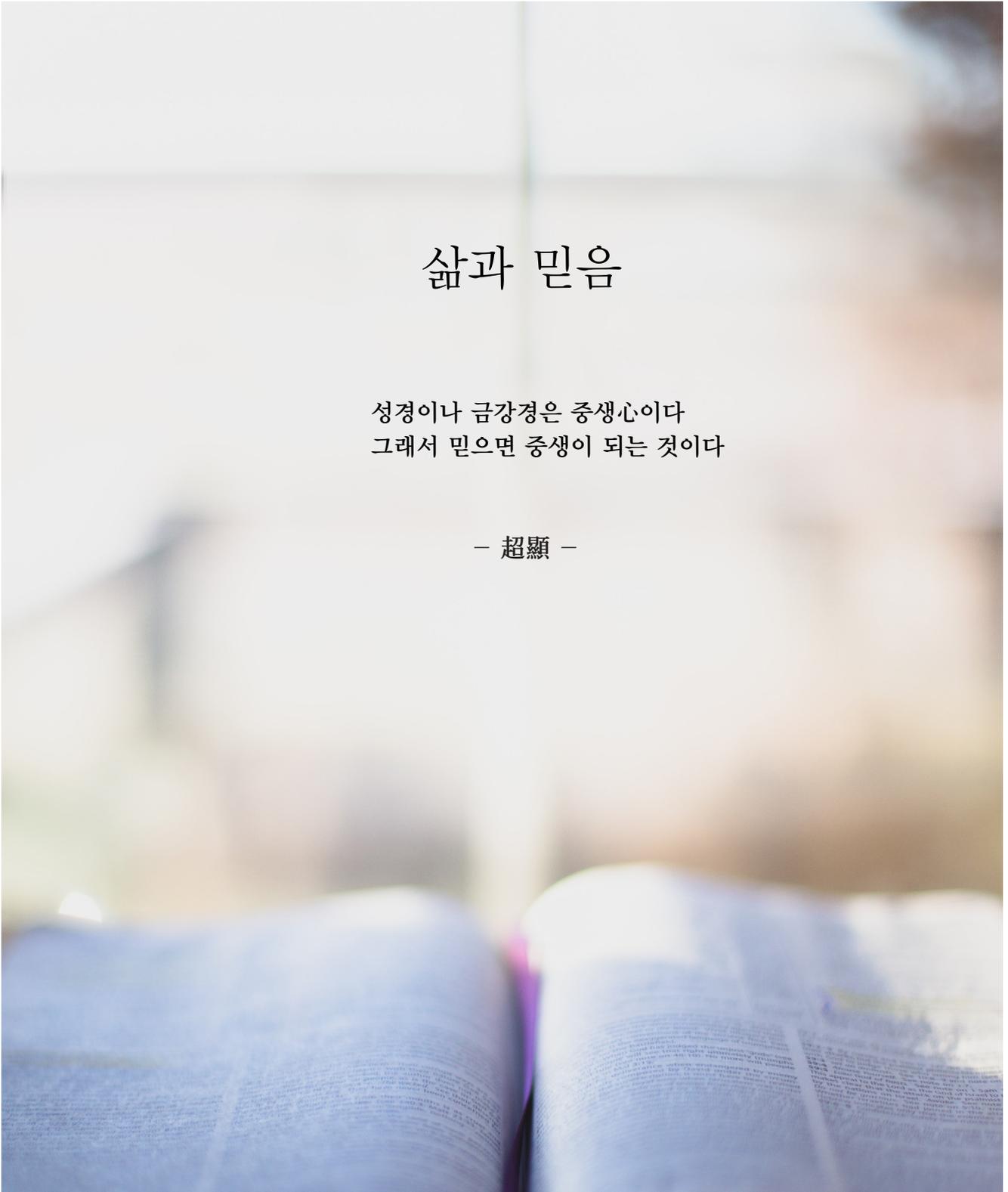
오인회 소식

2020년 4월 (제103호)

삶과 믿음

성경이나 금강경은 중생心이다
그래서 믿으면 중생이 되는 것이다

- 超顯 -



홀로스 공동체 후원 현황

● 홀로스 운영 후원 내역

○ 일반후원

3월 27일 장경옥 2만원 / 4월 2일 박영래 2만원 / 4월 9일 류창형 1만원 / 4월 10일 선호 1만원 / 4월 10일 목어 10만원 / 4월 15일 해연 10만원 / 4월 20일 여행 1만원 / 4월 27일 장경옥 2만원

● 공동체학교 후원 내역

○ 일반후원 (기보 100만원, 연주 60만원, 바람 300만원, 지원 100만원, 자명 230만원, 노래 100만원)

○ 월정기후원 (매월 20만원 / 별칭 뒤에 숫자는 월 후원 횟수입니다)

• 일반 (익명A24, 익명B24, 능주24, 솔내음21, 무유25, 고을41, 서원24, 여몽34, 원님40, 기보24, 썬이25, 허유24, 거위24)

• 기타 (가온38, 구당40, 자현24)

<공동체학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문의 02-747-2261

●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 안내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계좌> 농협 351-0680-1315-13 이원규. 문의 02-747-2261



'깨어있기'가 깨어있게 한다 (7부)

무연 님과의 대담 / 정리 : 영채

2013~2014년에 걸쳐 오인회에 참여하였던 무연 님과의 대담을 위주로 오인회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소개합니다. 감지에서 감각, '나라는 느낌에까지 이르러 점차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마음속 현상'으로 보는 과정을 세세히 담았습니다.

무연 님은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생각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연히 《깨어있기》 책을 만나게 되었고, 책 속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상"이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합니다. 그후 깨어있기 프로그램과 오인회 모임에 참가하면서, 내 마음의 상이 내면에서 언어로 나타난 것이 생각이고, 외부의 움직임으로 표출된 것이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각하는 것도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깨어있기'란 단어가 사람을 깨어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무연 : 시각적인 감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도를 갖지 않고 연습을 안 하면 그렇다는 느낌이나 생각 없이 보통 지나가고 말더라고요.

월인 :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저 밖에 있는 실체 같지요.

무연 : 네. 계속 연습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월인 : 좋습니다. 생각느끼기는 어떻습니까?

무연 :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뇌 속의 물리적 느낌을 잡아서 느껴보라 하셨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할 때는 그러려고 하는데, 순간은 되지만 금방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인 : 생각이 느껴진다는 것이 뭔지는 아시겠어요?

무연 :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나타났을 때,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전의 에너지적인 느낌을 느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에 관계없이 나타난 에너지로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월인 : 지금 동대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랐죠? 옛날에 봤던 거죠? 그럴 때 마음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전체로서의 어떤 구별되는 느낌이 없습니까?

무연 : 전체로서 구별된다는 말씀은, 이미지적인 거요?

월인 : 이미지적인 것은 내용입니다.

무연 : 내용하고 말씀하시는 것 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내용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월인 : 동대문의 그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은 내용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멀리 가버리고 말아요. 그보다는 현재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장, 그것이 두뇌든 마음이든지, 마음에 동대문이 떠올랐는데 보통은 동대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 활동하는 드라마의 내용에 폭 빠져 들어가면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주인공과 주변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스토리, 관계들의 네트워크 상에 폭 빠져들어 가게 됩니다. 전체의 스토리가 다 느껴지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과거나 미래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를 떠올렸기 때문에 내용이 당연히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고 내용을 감싸고 있는 나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스토리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동시에 하라는 것이지요. 동대문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동대문을 떠올리고 있는 현상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보세요.

또는 동대문이라는 무덤덤한 사물을 떠올려보고, 회사에서 보기 싫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두가지는 어떤 에너지적인 느낌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무연 : 차이가 있습니다.

월인 : 어떻게 있어요? 회사 사람을 떠올렸을 때는 어떤 거 같아요?

무연 :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월인 : 동대문은 약하고 회사 사람은 강하지요? 이것이 바로 밖에서 느껴지는 느낌의 일부예요. 어째서 보기 싫고 이러 저러한 상황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라면, 그 전반적인 느낌은 강하고 그에 반해 동대문은 약합니다. 하나는 무덤덤하고, 다른 하나는 강한 밀침과 연관된 느낌이에요. 거기서 밀침의 느낌을 빼고, 비교를 해보면 강한 형태라든가 질감이라든가 무게 이런 것들에서 두가지 느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는 끌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느낌은 어떻게 됩니까? 밀쳐내는 사람과 끌리는 사람과 무덤덤한 사물과는?

무연 :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월인 : 가볍긴 가벼운데 무덤덤한 동대문과 비교해서는 어때요?

무연 : 동대문은 무덤덤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월인 : 에너지 레벨은 어떻게 됩니까?

무연 : 에너지 레벨은 좋아하는 사람이 높긴 한데 편안한 느낌입니다.

월인 : 그렇죠. 밀쳐내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연 : 밀쳐내는 사람은 무겁죠.

월인 : 에너지가 투입되는 양은 어때요?

무연 : 무거운 쪽이 많다는 느낌입니다.

월인 : 느낌을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밀쳐내고 끌리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느끼고 있는, 내 에너지를 잡아먹는 양상, 에너지가 투입되는 양상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느끼는 물리적인 느낌을 파악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의식적 내용은 다 알거든요. 그렇지만 내용에 빠지지 않는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밀쳐내는 사람을 떠올렸는데 싫은 느낌 속으로 빠지나요? 아니면 '싫은 느낌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고 있습니까?

무연 : 빠지지 않고 느껴집니다.

월인 : 자, 그럼 그런 것들이 구별되면 이제 무덤덤한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느껴보면서 구별해보면 되겠죠. 동대문을 떠올려보고, 시골 풍경을 떠올려보고, 이랬을 때 내 안의 에너지가 투입되는 양과 질과 무게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soft한 것, hard한 것 등등. 그 생각을 떠올렸을 때의 내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생각의 내용을 알지만 그 내용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내용만 존재하게 되지 않아요. 내용을 밖에서 보는 것이지요.

무연 : 그런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볼 때 저는 스토리, 문장으로 연결된다든가 어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월인 : 대부분의 마음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무연 : 네. 조금 생각하다가 다른 것과 연결이 되고 맙니다.

월인 : 그렇습니다. 생각의 네트워크에 빠져버리게 되지요. 처음에 좀 느끼는 것 같다가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의도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한 문장, 한 생각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느낌, 그것이 전반적으로 내 몸에 펼쳐내는 다양한 질적인 느낌, 형태적인 느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그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말하면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생각은 생각대로 다 하지만 그것을 또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되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현상으로 보게 되는' 첩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감정과 생각이거든요. 호오가 없는 '느낌'은 '구분이 되지만'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내 기준'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느낌이기에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느낌이 강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연습이 됩니다. '생각'은 우리를 끌고다니는 주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다룰 수 있어도 거의 70~80프로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아주 섬세한 생각의 경우를 제외하면, '느끼기'를 통해 대부분의 거친 생각이라는 굴레에 빠져들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고 싫음은 이미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생각은 더 거친 측면이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은 일상의 필요를 위한 분별과 많이 연관되어 특별히 끌리고 밀치는 것이 없는 무덤덤한 분별이 대부분입니다. 필요에 의한 것으로 좋고 싫음이 크지는 않거든요. '내가 버스타고 집에 간다.' 이런 것은 일상적인 생각이니 좋고 싫음이 없잖아요. 어떤 '도구로서의 생각'인데 그런 것까지 느낌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느끼기가 아주 민감해진 것입니다. 좋고 싫음은 사실, 구분은 명확히 되지만, 그 속에 내가 가진 기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이루는' 그런 생각을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덤덤한 생각을 다루게 되면 점점 그것도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덤덤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나'가 강하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강해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강해지죠. 그러나 무덤덤한 대상을 만나면 끌리고 밀침이 없기에 '나'도 되게 약해져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생각들을 구분해낸다면, 아주 미묘하고 작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생각들에 대해서도, 그 생각들의 형태와 질감들을 구분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많이 민감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끌리고 밀치는 강한 감정을 동반하는 생각들이 미묘하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게 올라올 때 분별하고 멈추기는 쉽습니다. 따라서 느낌에 민감해져서 분별력이 치밀해지고, 그 치밀한 분별력으로 거친 감정이 시작될 때의 미미한 느낌도 구분해내면 마음은 거기서 Stop!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을 때 다루기는 무엇이든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감지와 연결이 됩니다. 사실 '생각 느끼기'라는 것도, 생각이 느껴진다는 의미에서 감지라는 의미입니다. 기초과정에서는 이름과 생각의 단계가 있고 그 밑에 감지가 있고 그 밑에 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 마음의 상이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마음에 나타난 모든 것은 감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지는 이름과 생각의 차원이고, 어떤 감지는 거기에 좋고 싫음이 붙은 더 거친 감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깨어있기 기초과정에서 말하는 감지는 이름과 생각 좋고 싫음이 다 빠져나간 '구분만 되는 느낌', 이것만을 협의의 감지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얘기하자면 마음속에 느껴지는 모든 현상들은 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것이 감지냐 하면 감지는 느껴지는 것인데 느껴지는 이유는, 항상 나와 대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는 내가 무언가를 느낀다고 해왔지만 더 깊숙이 내려가면, 그 나라는 것도 일종의 대상과 함께 나타난 마음 속 감지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나'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나'를 찾아보려 라면 어떻습니까? 사라지죠.....(잠시 멈추고). 지금 다시 '나'라는 것이 느껴지죠? 대상인 저와 얘기하면서 무연님 자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벌써 그것이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 지금 들어가 보세요. 찾아봅니다. '나'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나'가 있다고 느꼈는데 '내가 어디있지?' 하고 나를 찾아보면 어때요? 좀 전에 '내가 있다'라고 느꼈던 그 느낌 속으로 찾아들어가 마음속을 뒤져보면 뭐가 좀 막막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죠.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기 연습에서 했던, '보여지는 나'라는 '주의 덩어리'와 보기 시작한 '관찰자로서의 나'라는 '주의 덩어리'가 만나면 그냥 서로 투명한 돌이 만나니까, 하나의 물방울이 다른 물방울에 붙어서 커다란 물방울로 되고, 그래서 주의만 남아 그냥 ,알아채는 것,만 남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미묘하게 우리는 그것 역시 감지라고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만 기울이면 알아채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잖아요? 물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챌만 있겠죠. 그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느껴진다는 측면에서 감지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나 거친 감지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파악해 가는 것입니다.

일단 시각적 감지는 오래도록 연습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제료와 주의5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시각적 느낌을 자꾸 파악하는 연습을 매일 한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이것이 느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구나.' 하는 것이 파악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보시고 생각 느끼기도 해보시면 마음의 뿌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정도로 할까요?

무연 : 네. (다음 호에 계속)

대승기신론(86) - 2013년 10월 15일 강의 월인(越因)

인간은 뜻을 세우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

云何對治。明眞如法身自體不空，具足無量性功德故。

운하대치. 명진여법신자체불공, 구족무량성공덕고.

어떻게 대치하는가? 진여법신은 자체가 공(空)하지 아니하여 무량한 성공덕(性功德)을 구족했기 때문임을 밝힌 것이다.

앞에 인용한 경전에서 '본질은 공(空)하다'고 했지만 이제 '본질이 공(空)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을 자꾸 끊어내고 있습니다. 본질은 현상이 아니라고 말하면 마음은 현상 아닌 텅 빈 공(空)을 상상하여 붙잡는데,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공(空)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불공(不空)이라는 것이지요. 공(空)하다면 그 어떤 것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여법신(眞如法身)은 불공(不空)하여 무량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그 무엇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뜻을 세우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본질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공(空)이

아니에요. 생명의 힘은 대단합니다. '본질은 색(色)이 아니고, 그 어떤 현상도 아니다.'라고 하면 그 의미를 오해하여 무기공(無記空)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고요함 속에만 있으려 하는 것이 무기공입니다. 그것은 본질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드러나는 모습은 아주 역동적이에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초연하게 세상과 등질 줄 알지만, 오히려 세상과 가장 상관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현상과 세상 자체가 본질입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현상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마음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질은 파도가 아니라 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습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의 모습'에 매달려서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 집착을 깨트리기 위해서 "당신이 집착하여 매달리는 것은 현상이다. 마음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공(空)하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을 듣고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본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공(空)에 빠진 것입니다.

본질은 무한한 생명의 힘이라서 못해내는 것이 없습니다. 인아견(人我見)을 깨뜨린다는 것은, 고정적인 '나'가 없으므로, '추구하거나 이루어야 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임시적인 '나'를 세워서 필요한 데 몰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내 몸이 바스러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몰입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힘을 본질이 발현시켜줍니다. 불변하는 고정적인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해서 활발한 생명 작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힘은 크고 거칠게 작용하기도 하고, 아주 미세하고 민감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바늘귀보다 작기도 하고, 우주보다 더 크기도 한 것이 생명의 힘이라서 못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여겨서 주저앉히려 한다면 생명의 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한한 공덕은 모습이지 본질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힘이 쓰이는 대단한 모습들은 아주 멋지지만, 그것은 모습이지 본질은 아니므로 그런 모습에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니까 보상받고 싶거나 남에게 주지 않고 나만 갖고 싶다는 그 집착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잘하지만 다른 것은 못해.' 이런 것도 무언가에 묶인 집착의 일종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과 공(空)하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본질이 공(空)하다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현상은 본질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색(色)이라는 개념에 대항해 방편으로 쓴 것일 뿐입니다.

三者間修多羅說, 如來之藏無有增減, 體備一切功德之法, 以不解故, 則謂如來之藏有色心法自相差別.
삼자문수다라설, 여래지장무유증감, 체비일체공덕지법, 이불해고, 즉위여래지장유색심법자상차별.

세 번째, 경전에서 '여래장(如來藏)은 증감이 없어 체(體)가 일체 공덕의 법을 갖추었다.'고 하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래장은 색(色)·심법(心法)의 자상(自相)과 차별이 있다고 여긴다.

여래장(如來藏)은 만상(萬象)과 만법(萬法)을 품고 있는 것으로, 여래(如來)가 드러날 수 있는 씨앗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마음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생의 마음이 곧 여래장입니다. 소승(小乘)이 보는 중생은 그냥 중생이지만, 대승(大乘)은 중생의 마음이 곧 본질이라고 봅니다. 다만 커튼에 가려져있을 뿐이죠.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이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여래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래장(如來藏)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한 톨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습니다. 중생이 깨달은 부처가 되었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없고, 중생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더 못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깨우쳤다고 해서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본질의 측면에서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열심히 수련해서 못하던 것을 해내는 것은 본질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더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차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본질을 떠나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래장(如來藏)의 본체가 일체의 공덕(功德)의 법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體備一切功德之法) 여래장(如來藏)이 공덕을 갖추었다는 말을 들으면 여래장(如來藏) 자체의 상(相)이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은 잘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면, 두 사람의 체(體)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체(體)는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본질은 똑같이 무한한 공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질에는 어떤 증감도 없습니다. 개한테도 불성(佛性)이 있어서 그 본질은 사람과 같습니다. 개한테도 있고, 바보나 천재에게도 있어서 늘 변함없는 것,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변하는 모든 것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덕을 갖추고 뭔가를 해냈다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고, 차별이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책상과 사람의 몸을 살펴봅시다. 하나는 무생물이고 다른 하나는 최고의 지성을 갖춘 인간이죠. 그러나 미세한 레벨로 내려가 보면 탁자의 분자와 사람 몸의 분자는 모두 소립자와 쿼크(quark), 에너지 스트링으로 이루어진 진동입니다. 또 의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신을 유지하려는 힘을 갖춘 '현상'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이거나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책상과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차이를 보는 것은 관점이 모습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萬物), 만상(萬象), 만인(萬人)이 평등하다는 것은 본질적인 관점에 가깝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는 이는 본질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하여 나누는 마음은 초점이 차별에 있고, 상(相)의 본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과 같은데, 이는 본질을 떠나있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홀로스 공동체 소식

1. 깨어있기 기초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랑나무 님이 그동안 일본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가기 전에 깨어있기를 통해 뭔가 깊은 무심을 경험한 듯 하여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그 속으로 들어가 편안하였으나, 어느 순간 편안해 하는 그것에 의심이 갔고, 가기 전에 월인 님에게 들었던 '거울은 스스로를 비추지 못한다'라는 말을 화두삼아 6년간 탐구하다가 어느날 식사중에 그것의 의미를 크게 깨닫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맨처음 함양에 찾아왔고 지인과 누님을 깨어있기로 안내해 좋은 경험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다음호에 사랑나무 님의 체험담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2. 깨어있기 마스터 제2그룹에 3분이 새롭게 참여합니다

아소, 노래, 카이 님이 깨어있기 마스터그룹 2020년 제2기에 참여합니다. 아소 님은 올해 초부터 참가하기 시작하였고 5월부터 노래, 카이 님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마스터모임이 연기되었다가 다시 5월부터 재개됩니다. 2019년에 시작된 마스터그룹은 이제 2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스터모임에서는 깨어있기 책에 있는 연습들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매월초 토요일모임을 통해 '자아'라는 독에 금이 간 마스터들이 월인 님과의 심도있는 주고받기 대화를 통해, 독을 무너트리고 무한으로 향하는 길에 올라서도록 깊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수국이 잘 크고 있습니다

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수국 150그루가 함양연수원 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3월 19일 심은 후 매주 월요일 물을 주고, 잠깐씩 잡초를 뽑아주며 돌보았지만 원래부터 약한 아이들이 있었는지 그중 9그루 정도가 아직 싹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여전히 싹을 내지 못하면 다른 수국나무에서 가지를 데려다 삽목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초현 님의 도움과 공동체 학교 메타몽 님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수국 키우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수국 키우기



샤인머스켓

4. 샤인머스켓을 심었습니다

함양 토양과 기후에 맞는지 농업기술원에 문의 후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나무를 두그루 심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외 자귀나무, 애기동백도 심었습니다. 초현 님이 수국과 함께 보내온 플럼코트, 헤이즐릿 개암나무, 서양호두 피칸, 플루오루 나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5. 통찰력게임을 진행했습니다

4월 23~24일 함양에서 통찰력게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길을 찾는 사업가 세 분이 심오한 무의식으로의 탐험을 경험하고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백일간 스스로 정한 약속을 지키며 자신의 주제를 이루는 행동을 하나하나 해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6. 기부 및 후원

물방울 님 구운계란과 갓김치 맛있게 먹고있습니다. 또 만두와 굴비, 해물믹스와 손질새우도 잘 먹었습니다. 아소 님의 통밀 크래커와 곱창김, 테비 님의 사과와 꿀고구마, 아몬드 밀크, 이류 님의 청양고추장, 오징어, 떡, 이영훈 님의 인삼 모두 감사합니다.

7. 함양연수원 방문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박3일에서 일주일, 한달간 방문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백일학교 일상을 공유할 수 있고, 아침저녁으로 월인 님과 모임을 가지며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관찰과 일상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경험해보십시오.

- ◆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함양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 .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와 관련해 질문이 있거나, 저자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
- . 백일학교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
- . '깨어있기', '자연에 맡기기', '통찰력게임'의 핵심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
- ◆ 방문 프로그램 상세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십시오.

<http://www.herenow.co.kr/bbs/zboard.php?id=lecture&no=181>

8. 자연에 말걸기를 일주일간 진행했습니다

‘자연을 긍정하므로, 나를 긍정한다.’

매화(홀로스 백일학교 수료자)

[시작]

시작은, 자연에 말걸기에 대한 별 기대없이 ‘좋다니까, 한번 경험해보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동안 자연에 말걸기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깊은 통찰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연을 저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써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에 말걸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에서 자연의 언어인 ‘느낌’의 차원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연습을 하는 때 순간마다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들의 응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익숙하지 않았고, 또 조금 귀찮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무렇지 않게 걸었던 땅과 허락없이 뺏았던 잡초, 내가 필요했기에 무심코 꺾었던 나무나 풀잎들에게 더 이상 허락없이 무언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하루, 이틀을 거듭할수록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자연을 대할 때 ‘중요한’ 과정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6일간 함양연수원 주변의 나무와 풀과 하늘과 동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자연을 이 후기를 보시는 분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라는 감각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생생하게 전달이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호두나무와 나]

자연에 말걸기 연습 중에서 강하게 끌리는 대상을 찾아 동의를 구하고, 그것을 만지고 보고 느끼면서 그것이 왜 끌렸는지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리수관 산책길에 있는 ‘호두나무’가 끌려서 그것을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나는 식물인 호두나무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매끄럽고, 굳터터기 없는 나무줄기가 마음에 든다. 지금은 열매도 꽃도 없는 가지뿐이지만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많지는 않아도 튼튼한 가지들을 뺏어내고, 다른 호두나무에 비해서는 어리지만 큰 줄기가 힘껏 하늘위로 쪽 뻗어 오른 것이 하나의 길을 향해 가면서도 필요한 가지들을 뺏어나가는 것 같다. 청년의 시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회백색의 나무색감이 다른 나무와 달리 독특해서 매력적이고, 약간의 튼살같은 무늬가 튼살같은 상처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무늬이기도 한 것이 좋았다. 줄기가 잘린 옹기는 나무의 눈처럼 매력있게 느껴졌다. 잘린 옹기는 비록 가지는 없지만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 된 것 같았다. 줄기가 뺏어나가는 나무의 튼실한 옹기가 삶의 원천이자 시작점, 응축된 에너지처럼 느껴지는 것이 좋았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호두나무가 아니라, ‘나는 나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으로 바꿔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문장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에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저는 이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긍정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고



싶지만 쉽지 않았고, 웬지 모르게 두려웠고, 자신이 없는 것에 주의가 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빨리 성공하거나 든든한 직장과 돈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저는 그런 자신에게만 주의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두나무를 긍정했던 것이 저에 대한 긍정으로 바뀌면서 저에게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의 주의가 저의 부정적인 것들에 치중되어 이미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게 됨을 알게 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지금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저를 이해하게 했습니다. 저는 돈이나 직장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행복이나 답이 궁금했고, 삶을 조금 더 의미있게 살아내고 싶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면에 있었기에 누군가는 방향이라고 할지 모르나, 이렇게 의식에 대한 공부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제가 이미 호두나무와 같이 나아가고 있음을 호두나무에 대한 긍정으로 깨닫게 되었고, 호두나무는 저에게 그것을 알게 해준 촉발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름없음]

꽃과 풀잎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모든 이름과 꼬리표를 떼면 너는 누구니?” 그때 그들이 보여준 것은 말없이 그저 ‘흘러가는 하나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노란 풀이 되고 싶어 노란 풀로 있지 않았고, 푸른 잎이 되고 싶어 푸른 잎으로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나의 모든 이름과 꼬리표를 떼면 나는 누구니?” 질문하자, 그저 숨이 들어왔다 나아가며 지나가는 바람과 햇살을 느끼고 알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어떤 이름과 꼬리표로도 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핀 꽃이나 나무나 풀들도 저와같이 바람과 햇살을 느끼며, 축축한 이슬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없이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이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본래 어떤 이름과 판단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늘이나 나무나, 강아지들에게 본래 이름이 없듯이 나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자연에 맡겨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자연도 없고, 나쁜 자연도 없었습니다. 저를 설명하고, 덧붙이는 수많은 단어와 생각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본래 그러하다는 것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느낀다’는 자연이 준 감각]

자연에 맡겨기는 저에게 이미 있는 수많은 감각들을 일깨우고 그것을 신뢰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말보고, 촉감을 느끼는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었고, 말하고 글을 쓰고, 생각하는 이성이라는 감각을 새롭게 의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53가지의 자연감각들에 대해 배웠고, 자신이 가진 감각을 개발하는 연습들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수많은 감각들에 대해 의식하게 된 것은 무엇을 더 채우고 얻지 않아도 이미 제가 많은 것들을 가진 존재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원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 자연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준 ‘자연감각’이었고, 그것을 의식하자 저에게 주어진 감각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감각에 집중하여 자연물을 느끼자 생생하고, 진한 경험들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세상이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각에는 싫음이나, 두려움이 없고, 그저 나에게 닿는 느낌들의 생생함만이 있었습니다. 꼭 무엇이 되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감각과 자연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 자체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자연]

암벽장과 창고 사이에서 동의를 얻은 뒤, 처음에는 그냥 그 공간을 걷다가 '합일'이라는 단어를 되뇌이며 공간을 걸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 공간을 걷다보니 오디관의 굴뚝과 굴뚝의 소리, 하늘, 단지, 작은풀 등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영역,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서로 뒤섞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빈 공간 속에 하나의 영역을 가진 존재들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바위와 풀들이 섞이고 나무에 넝쿨이 붙어있는 것을 보는데 '지저분하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밀침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빈마음으로 '합일'을 되뇌이며 걷는데 갑자기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과 자극들이 내 마음의 일어남과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면의 자연'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생각없이 보고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제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끊임없이 일어나듯 내 마음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고요함과 일어남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속에서 일어남이 있고, 고요함이 있어 일어남이 드러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외부이든 내부이든 모두 자연이고 '합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현상을 밀쳐내는 것은 곧 자연을 밀쳐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자연과의 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과의 진정한 합일은 외적자연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까지도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자, 저를 하나의 '자연'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면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면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의 개성을 가진 자연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저에게 불편감을 주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상대방의 반응 또한 하나의 자연으로써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접근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 사람도 하나의 개성을 가진 자연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고, 문제상황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자연과 자연이 만나서 일어난 각자의 '반응'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고, 상대도 탓하지 않으면서 문제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지’로 상대를 ‘느낀다’는 것의 의미]

끌리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잡아당기면서 그 느낌을 느끼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무와 풀과 들꽃을 했는데 식물을 잡아당기자 식물들이 뽑히지 않고, 꺾이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을 쓰고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 나무를 꺾거나, 잡초를 뽑고, 꽃을 꺾을 때 그 식물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터내고 있음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늘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들풀이나 나무를 꺾을 때 그들이 받는 느낌의 신호들을 제대로 느껴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것이 필요해.' '예쁘다.' '갖고싶다.' '먹고싶다.' 등의 생각에 빠져서 아무렇지 않게 손을 대어 꺾어버릴 뿐 그 대상이 당기고 있는 힘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감각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느끼면서 행동하는 것과 상대방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의도를 갖고서 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그 순간의 느낌을 느끼며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감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지로 대한다는 것은 마치 나무를 잡아당길 때 그 순간의 느낌을 느끼듯, 대상에 대한 나의 의도나 생각을 비우고, 그 순간의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감지로 봐야지 하면서도 은연중에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이럴거야' 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아마 이렇지 않을까?', '이럴거야' 라고 생각이 올라올 때 상대의 얼굴을 한번 더 보고, 느낌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통찰이 한번 깊어지자, 판단이 일어날 때 자동적으로 알아차려지면서 느끼고자 하는 의도가 저절로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경험을 통한 통찰에 힘이 있다고 느꼈고, 힘 있는 통찰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하려하지 않아도, 상황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 저절로 나를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각으로 하는 이해가 아니라, 경험적인 느낌과 통찰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의식 탐구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변화]

밥 한술과 나물 한 젓가락을 먹을 때에도 자신을 기꺼이 내어준 자연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콧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와 나를 감싸는 공기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 늘 자연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만 보아도

아름다움에 젖을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풀의 보드라운 느낌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하나의 생명력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이름없이 살아가듯 나 또한 이름없이 그저 흘러가는 존재이자 하나의 '자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 자연의 속성인 '이름없음, 지성, 끌림, 사랑(無名智引愛)'이 그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에 말걸기를 통해 '자연'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강력추천이에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의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연에 말걸기도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어있기 기초, 심화를 듣고 하게 되시면 더욱 깊은 체험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 함께 추천드립니다!



강의 · 도서 구입 안내

1. 영상강의 데이터 목록

영상강의는 USB 메모리에 넣어 제공되며 1강의당 3,000원입니다. 아래 구분은 편의상 한 것으로, 영상강의 데이터는 원하시는 순서, 시간만큼 요청하시는 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다르마, 이류, 아소님이 신청해주셨습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구분	강의	가격	비고
1	진심직설	전체	총 48강	144,000원	2014.10.28 -2015.6.2
		1강-12강 13강-24강 25강-36강 37강-48강	각 12강	각 36,000원	
2	조론	전체	총 52강	156,000원	2017.4.4 -2018.5.15
		1강-13강 14강-26강 27강-39강 40강-52강	각 13강	각 39,000원	

- ※ 영상강의 원본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직접 담아가시거나, 외장하드를 보내주시면 저장해서 다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원본과 용량을 줄인 동영상의 가격은 같습니다.)
- ※ 700메가로 줄인 영상강의는 이메일이나 32기가 USB(40시간 정도 수록, 별도 1만원)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2. 도서 안내

구분	제목	가격
필독 도서	깨어있기™ - 의식의 대해부	12,000원
	관성을 넘어가기™ - 감정의 대해부	10,000원
추천도서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권	25,000원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中권	25,000원
	주역, 심층의식으로의 대항해 (만화)	10,000원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	8,000원
	푸른 빈 배 (eBook) 	7,000원

◆ 구입문의 ◆

- ※ 입금계좌 : 농협 053-12-130081 이원규
- ※ 문의 02-747-2261

- ※ 홈페이지, 문자,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주문하시면 됩니다.
- ※ 주문하실 때는 주소, 휴대폰 번호, 성함을 알려주십시오.
- ※ 배송료 2,500원(제주도 5,500원)을 합산해 입금해주시시오. (주문금액 10만원 이상은 배송비 무료)